

새벽에 떠나신 현지지도의 길

1999년 5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른새벽 안변군의 어느한 농장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인민들이 아직도 단잠에 들어있던 그 시각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신데는 사연이 있었다.

일군들로부터 여러가지 형의 뜨락또르들이 논써레질을 하는것을 보실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았다는 보고를 받으셨기때문이였다.

이른새벽에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일군들은 오후로 일정을 바꾸었으면 하는 청을 드리였다.

5월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새벽이면 쌀쌀한 기운이 감돌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는 중요한 사업인데 순간도 지체할수 없다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나가보자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떠나신 새벽길이였다.